집값은 내리는데 전셋값은 더올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전국 매매가격 전주에 이어 보합… 전세가격 0.02% 상승 · 전주 보다 폭 커져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한 반면 전셋값은 상승세는 더 커지고 있다.

2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20일 기준 전국 매매가격은 전주에 이어 보합했다. 전세가격은 0.02% 상승하면서 전주(0.01%)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이로써 올해 이번주까지 전국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매매가는 0.02% 하락한 반면 전셋값은 0.08% 상승한 셈이다.

이번주 매매가격은 11·3대책과 대출금리 상승, 경기침체 여파로 관망세가 유지되고 있다. 신규 입주물량이 집중된 지역은 하락했지만, 재건축 사업 추진 기대감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실수요 거래가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는 보합세를 이어갔다.

수도권에선 0.01% 상승, 지방은 0.01%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과 경기 각각 0.03%, 0.01% 올랐지만 인천은 0.03% 하락했다.

서울 강북권(0.01%)은 전주 상승폭을 이어갔다. 성북구에서 신규 입주물량이 늘어나 지난 2014년 10월말 이후 약 2년4개월(121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마포구와 은평구는 상승세가 지속됐다.

강남권(0.05%)은 전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양천구는 하락 전환했지만 강남구와 송파구에서 재건축 사업 추진 기대감이 커졌다. 강서구와 금천구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방에서는 울산과 전남은 상승전환하고 전북은 상승폭이 커졌다. 하지만 부산 해운대구에서 전매제한 등 청약제도 탄력조정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소식 영향으로 2주 연속 하락했다. 대구와 충남은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전체적으로 지난주 하락폭을 이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시도별 매매가격은 부산(0.05%), 강원(0.04%), 전북(0.03%), 울산(0.01%), 전남(0.01%)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제주(0.00%)는 보합, 경북(-0.09%), 충남(-0.07%) 등은 내림세다.

전국 전세시장에는 신규 입주아파트가 늘어나고 금리상승 등으로 대출부담을 줄이기 위한 집주인의 전세공급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교통여건이 좋은 역세권과 선호도 높은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수요도 꾸준히 이어져 전국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주 전세가격은 수도권은 0.02% 상승, 지방은 0.01%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과 경기·인천 모두 0.02%씩 상승했다.

서울 강북권(0.02%)은 성북구에서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들이 대단지 신규 입주로 이동하면서 전세매물이 늘어나 하락전환했다. 마포구와 노원구 등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권(0.02%)은 양천구 노후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폭이 확대되고 강동구도 대단지 신규 입주가 이어지면서 하락세를 보였지만 서초구와 관악구, 송파구 등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에서 136주만에 하락 전환하고 연제구도 2주 연속 하락했다. 반면 대전은 서구와 유성구를 중심으로 상승, 신규 입주물량이 집중된 세종과 경북 등은 하락폭이 확대됐다.

주요 시도별 전세가격은 대전(0.10%), 전북(0.07%), 강원(0.04%), 부산(0.04%) 등은 강세를 보였다. (0.00%)은 보합한 반면 세종(-0.08%), 대구(-0.03%), 경북(-0.03%) 등은 약세를 보였다. /뉴시스

시중에 풀린 현금 100조 돌파 최근 기준금리 인하와 저금리 지속 등의 영향으로 시중에 풀린 현금이 100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사진은 KEB 하나은행 본점에서 관계자가 5만원권 지폐를 정리하고 있다.

1인가구 만족도 여성이 더 높아

10명 중 7명 '만족' … 49.7% "앞으로도 혼자 살 것"

40대 이하 1인 가구가 전체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절반 이상은 앞으로도 혼자 살겠다고 답했다.

KB금융경영연구소는 연소득 1200만원 이상 20~40대 1인가구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2017 한국 1인가구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인가구는 전 연령층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40대 이하가 전체 1인가구의 절반 이상인 52.8%를 차지했다.

이들은 평일 혼자 두끼를 먹는 이른바 '혼밥'을 하는 경우가 41.5%로 가장 많았다. 주말에는 '혼밥' 비중이 더 늘었다. 하루 두끼를 혼자 먹는 경우가 49.2%로 나타났다. 세 끼를 혼자 먹는 비중도 17.8%나 됐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중은 11.9%였고, 여성이 16.0%로 남성(8.7%)에 비해 높았다.

10명 중 7명은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높았다. 여성은 30대 초반에 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연령에 상관없이 70%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남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아졌다.

향후에도 혼자 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49.7%였다. 여성(63.1%)이 남성(39.3%)보다 혼자 살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한 투자보다는 안전자산에 대한 욕구가 강해, 금융상품 중 예·적금 보유율이 82.9%로 가장 높았다. 1인 가구의 보험 보유율은 81.5%였고, 이 가운데 실손보험 가입률이 66.3%로 가장 높았다. /뉴시스

미래부, ICT 창업 · 벤처 지원… 17개 사업 1028억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 사업 'K-Global 프로젝트'를 통합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K-Global 프로젝트'는 ICT 분야의 창업·벤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연계한 사업이다. 올해는 사업간 통합 등으로 규모를 확대해 17개 사업 1028억원 규모로 구성됐다.

미래부는 'K-Global 300' 기업 등 유망기업을 발굴해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K-Global 300'은 2015년 12월 선정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3년 동안 'K-Global 프로젝트' 참여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1000개 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K-Global 프로젝트' 지원 규모의 50%를 'K-Global 300' 기업에 우선 배정해 집중 연계 지원하고, 중기청·특허청 등 타 부처사업 지원 시 우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올해 지능정보기술 등 신기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ICT 신기술 아이디어 및 기술보유 유망 스타트업 418개사를 발굴해 창업·사업화·멘토링 등 77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국내 창업 생태계 다국적화를 통한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국적 스타벤처'로 선발된 80개 기업을 대상으로 '잡페어' 개최, 해외인재 채용, 스타트업 다국적화 교육 등 17억원을 지원한다. /뉴시스

이주열 총재 "가계부채 질적으로 개선 추세"

"시스템리스크로 작용 가능성 제한적… 취약 차주의 채무상환은 걱정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최근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질적으로는 개선되는 추세라는 견해를 표시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양적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부채 분포 상황이라든가 가계 금융자산·부채 현황 등을 감안해 볼때 가계의 채무 상환능력은 전체적으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의 구조적 질적 측면의 개선이 있었다"며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높아지면서 1~3등급의 고신용과 상위 30%의 고소득인 우량한 차주가 금액 기준으로 65%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부채를 갖고 있는 가구만을 보더라도 금융 자산이 금융 부채를 웃돌아 최근 무디스나 피치 등 주요 신용평가기관도 국내 금융기관 건전성, 가계부채 자료 분포, 질적 개선 노력 감안해 볼 때 한국의 가계부채가 금융 시스템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시장금리 상승세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이 총재는 "금년 들어 시장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고, 대내외적으로 금융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취약 차주에 대해 채무상환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 생각한다"며 "저소득층, 저신용, 다중채무자 등 취약 차주의 채무 부담에 대해서는 유의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LG유플러스, 'IoT 멀티탭' 출시 4개 가전 동시제어

LG유플러스가 스마트폰으로 여러 개의 가전제품 전원을 동시 제어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멀티탭을 28일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품은 국내 최대 정격용량인 3520와트(W)를 지원해 전자레인지, 오븐, 커피메이커 등 다양한 가전제품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으며, 4구의 콘센트 외에 2개의 USB 충전포트를 갖춰 스마트폰 충전이 가능하다.

제품 가격은 5만 5000원(부가세 포함)이다. 단품 구매 시 월 이용료는 2000원이며, 다른 IoT 상품과 패키지 구매 시 이용료가 할인된다.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IoT@home'을 통해 ▲전원 ON/OFF상태 확인 및 알림 ▲전원 자동 ON/OFF 타이머 설정 ▲대기전력·과부하 차단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외부에서도 원격으로 멀티탭에 연결된 가전제품 전원을 제어할 수 있다. /뉴시스